



배재영(왼쪽) 교수는 2011년 음악을 전공하는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작은 신의 아이들'을 창단했다.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는 이태웅(오른쪽) 씨는 배 교수가 2005년부터 음악을 지도해왔다.

“음악으로 어려운 이웃 위로하고 싶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서울나눔뮤직그룹

배재영(57) 숭실대 음악원 관현악과 전임교수가 음악을 통한 나눔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27년 전 일본에서 낯설면서도 신선한 풍경을 접하면서였다. 플루티스트로서 1990년 당시에 중앙대 음대와 서울예고 등에서 강의하던 배 교수는 공연차 도쿄에 들렀다가 NHK홀에서 열린 음악회를 보러 갔다. 그런데 공연장에는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와 있었다. 그들이 공연에 집중하면서 얼굴이 편안해지는 모습과, 공연 진후 그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공연장 직원들의 배려는 배 교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음악을 처음 시작한 청소년기부터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온 배 교수는 귀국 뒤 소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이 '사랑의 플룻 콰이어' 창단과 장애인 초청 자선음악회 개최였다.

1992년 제1회 자선음악회 개최

1992년 12월, 배 교수는 서울 예음홀에서 '10대 플루티스트들의 성탄절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사랑의 플룻 콰이어'가 첫걸음을 떼는 공연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자선음악회의 시작이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배 교수의 제자들인 10명의 플루티스트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고, 배 교수가 음악 봉사를 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의 신망애 복지타운 장애인 20명이 초대됐다.

처음에 배 교수의 제자들로 창단한 사랑의 플룻 콰이어는 독특한 공연 단체다. 플루트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로서 지금은 대학의 음대 교수와 강사, 국내 우수 교향악단의 플루트 연주자 20~100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주의 질이 무척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의 플룻 콰이어는 지금까지 25회의 자선음악회뿐 아니라 가족음악회 등 총 50여 회의 연주회를 예술의전당과 영산아트홀 등에서 개최하면서 장애인 11,000여 명을 초청했고, 공연 수익금 1억여 원을 신망애복지타운에 기부하면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해왔다.

대체로 밤에 열리는 다른 콘서트와 달리 사랑의 플룻 콰이어 공연은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한 낮에 열린다. 낮에 장애인시설에서 공연장까지 오다보면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므로 이날 하루는 소풍처럼 나들이를 하시라는 배 교수의 배려도 깔려 있



김현진 ©

※ 배재영 교수 : 1960년 서울에서 2남2녀의 막내로 출생. 서울 숙명여중·중앙여고 졸업. 연세대 음대 재학 중 스위스 유학, 제네바 국립음악원 졸업. KBS 교향악단 부수석 등 역임. 현재 숭실대 음악원 관현악과 전임교수. 1992년 '사랑의 플룻 콰이어' 결성, 장애인 초청 자선음악회 시작. 2013년 사단법인 서울나눔뮤직그룹 설립, 현재 대표. 아산상 자원봉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수상. 남편과의 사이에 1남2녀.

다. 처음에 20명을 초청했던 장애인 수는 지금은 콘서트홀의 규모에 따라 200~400명으로 늘었다. 보통 전체의 3분의 1이 장애인이고, 나머지가 일반 관객인데 공연장의 가장 좋은 자리는 장애인들에게 배당된다. 서울문화재단 우수 연주단체와 한국메세나협회 연주단체로 선정된 사랑의 플룻 콰이어 공연은 플루트만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콘서트여서 일반 청중도 많이 관람한다.

“20년 동안 계속 오시는 장애인도 계시요. 장애인들께서는 저희의 연주를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보람이고 기쁨이죠.”



배재영 교수는 1992년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플루트 오케스트라인 '사랑의 플루트 콰이어'를 창단해 매년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선음악회의 리허설과,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연주단체인 '작은 신의 아이들' 여름 음악캠프 모습.

발달장애 학생들로 연주단체 창단

2005년, 발달장애를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배재영 교수를 찾아왔다. 자신의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배 교수가 장애인을 위한 자선공연을 한다고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자 장애인에게 음악도 가르친다고 오해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가르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지만, 배 교수는 엄마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때 만나서 플루트를 가르친 발달장애인이 이태웅(28) 씨다. 태웅 씨는 배 교수의 지도 덕에 4년 과정인 송실대 음악원을 졸업할 수 있었다.

배 교수는 태웅 씨를 가르치면서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음악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배 교수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리고 2011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단체 '작은 신의 아이들'을 창단했다. 이태웅 씨를 비롯해 박가은(플루트), 이동현(호른), 김세운(피아노), 이동현(바이올린), 한웅희(첼로), 유승엽(클라리넷) 등이 활동하는 작은 신의 아이들은 SK케미칼과 서울문화재단 초청공연 등 지금까지 13회의 연주회를 개최했다.

“작은 신의 아이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특별한 재능으로 음악을 전공하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연주단체예요. 그들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서 음악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육 이끌어보기 위해서 시작했죠. 문제는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그토록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예요.”

휴머니즘을 갖춘 음악그룹 설립

2013년은 배재영 교수에게 특별한 해였다. 우선 자신의 제자 소개로 시각장애를 극복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49) 씨를 만났다. 김종훈 씨는 시각장애 1급임에도 한양대 관현악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했고, 부산콩쿠르(1위)와 동아콩쿠르(3위) 등에서 입상한 실력과 음악인이었다.

배 교수는 그가 송실대 음악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한편 '미라클 아이즈'를 만들어서 그에게 음악감독을 맡겼다. 미라클 아이즈는 시각장애 연주자들을 위한 연주 지원과 점자악보 보급, 점자 음악교본 제작 등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합동 연주로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미라클 아이즈 트리오'(플루트 배재영, 바이올린 김종훈, 피아노 유지수) 창단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클래식 음악계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1992년부터 매년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사랑의 플루트 콰이어와 발달장애 음악 전공자들의 연주단체인 작은 신의 아이들,

시각장애 전문 연주자를 발굴 및 지원하는 미라클 아이즈를 이끄는 배재영 교수는 예술을 통한 나눔과 동행을 더욱 체계화시키기 위해 2013년 사단법인 '서울나눔뮤직그룹'을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의 음악국 안에 사랑의 플룻 콰이어와 작은 신의 아이들, 미라클 아이즈를 두어 각각의 활동이 더욱 원활하도록 지원 및 관리하고 있지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음악,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음악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

배재영 교수는 1960년 서울에서 2남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공무원 출신인 아버지의 사업이 잘 돼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운 그녀는 서울 숙명여중 3학년 때 우연히 플루트 공연을 보고 플루트에 매료됐다. 플루트를 본격적으로 배운 건 중앙여고 1학년 때부터였다.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화여대 강당에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 열렸다. 그녀는 당연히 공연을 관람했고, 공연이 끝난 뒤 플루트 연주자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도 같은 악기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상냥한 연주자는 즉석에서 플루트를 불러 보라고 권했고, 그녀의 연주 솜씨에서 탁월한 연주자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주소를 주고받은 뒤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편지 왕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 플루트 연주자와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통해 스위스의 제네바 국립음악원에 오라는 초청장이 왔다.

집안에서는 막내딸의 해외유학을 반대했다. 그녀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자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 스위스행 항공권을 사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1979년 연세대 음대에 합격했고,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제네바로 날아갔다. 학부와 대학원까지 6년 과정인 제네바 국립음악원을 그녀는 4년6개월 만에 졸업했고, 1986년 귀국한 뒤에는 KBS교향악단의 부수석을 맡았다.

1987년, 두 살 위인 남편(박수홍)과 결혼하면서 KBS를 그만두었다가 결혼생활이 안정된 1990년에 중앙대 음대와 서울예고 등에 출강하며 후학을 키우기 시작했고, 1998년부터는 숭실대



자선음악회 수익금은 모두 중증장애인 복지기관인 신망애복지타운에 기부하고 있다. 위사진은 신망애복지타운에서의 봉사활동. 아래사진은 시각장애를 극복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가운데), 피아니스트 유지수와 함께한 '미라클 아이즈 트리오' 창단 음악회 모습.

음악원 전임교수를 맡고 있다. 배 교수는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녀의 쌍둥이인 딸 둘과 아들도 음악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음악의 울림이 소외된 곳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첫 연주를 시작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네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최고의 수준으로 최대의 감동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영 교수는 오는 10월에도 제26회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산의 향기> 독자들도 '가을 음악소풍' 형식으로 진행될 음악회에 참석해 음악을 통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보면 어떠실는지... 🍂